한고비 넘겼지만…이젠 피 말릴 6개월



힐러리-트럼프 美 대선 본격 레이스 힐러리 '끝까지 간다' 샌더스에 애간장 인구 2위 히스패닉계 트럼프 결사 저지 제조업 쇠퇴…'러스트 벨트' 지역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 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맞붙는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예측불허 라는데 이견이 없다.

양당의 경선 과정에서부터 '아웃사이 더' 돌풍이 휩쓸면서 이변이 속출된데다 가, 본선 대진표가 대표적 제도권 정치인 과 아웃사이더의 대결로 짜이면서 본선 전 망 역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 형국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 원이 클린턴 전 장관의 공고한 벽을 넘는 데 실패했으나, 공화당에선 트럼프가 기존 의 유력 제도권 주자를 포함해 16명의 경 쟁자를 차례로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 었다. 아웃사이더 돌풍 측면에서만 보면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아웃사이더 표심 어디로=이제 막 끝 난 민주, 공화 양당의 경선판은 아웃사이 더 열풍 그 자체였다.

지지율 1%에서 시작한 트럼프는 기라 성 같은 주자들을 꺾고 경선을 승리하는

대이변을 연출했고, 무소속 출신으로 민 주당 경선판에 뛰어든 샌더스 의원은 아직 "7월 전당대회까지는 경선이 끝난 것이 아니다"며 막판까지 클린턴 전 장관의 애 를 태우고 있다.

이 같은 아웃사이더 돌풍은 소수의 기득 권층,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밥그릇 다툼 만 하는 기성 정치권, 즉 워싱턴 정가에 대 한 성난 유권자들의 분노 표출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관심은 트럼프가 과연 본선에서도 아웃 사이더 돌풍을 일으키며 클린턴 전 장관을 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히스패닉과 트럼프의 인종차별주의 발언 영향은=미국의 인구분포도로 볼 때 이번 대선은 클린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측면이 크다.

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성향의 백인 인 구 비중은 줄어들고 민주당 성향을 보이 는 히스패닉계 등 소수계 유권자들은 늘어 난 데 따른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는 총 3억

1874만 명이며 이 중 백인 62.2%(1억9810 만 명), 히스패닉 17.4%(5541만 명), 흑인 13.2%(4203만 명), 아시아계 5.4%(1708만 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흑인을 제치고 2위로 부상한 히스패닉 계가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 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멕시코 이민자 들을 성폭행범과 범죄자로 취급하고 이들 의 불법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거대한 장벽 을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히스패닉계 단 체들이 '반(反)트럼프'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클린턴 전 장관이 반사이익을 볼 가 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는 트럼프대학 소송 담당 멕 시코계 판사에 대한 비판 발언과 관련해 당 1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 으로부터도 인종차별주의자(racist)라는 비판을 받는 등 안팎의 공격을 받는 처지

◇러스트벨트와 보호무역 변수 부상= '러스트 벨트'(Rust Belt)는 한때 부흥했

다가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지금은 쇠락한 중서부 및 북동부 공업지역을 뜻한다.

미시간, 일리노이, 위스콘신 등이 대표 적으로 이들 지역에서 트럼프는 승리하거 나 선전했고 클린턴 전 장관은 일리노이를 겨우 건졌으나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은 패 배했다.

경제 불평등과 일자리 감소 등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한 분노와 정치개혁 열망이 겹친 결과다. 트럼프와 샌더스 의원은 자 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중산층의 일자 리를 빼앗는다는 논리를 펴 성과를 거뒀 고, 트럼프는 본선에서도 이 작전을 구사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유무역 지지론자인 클린턴 전 장 관마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통상 업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는 등 미국 사회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보호무역으로 흐르고 있어 러스트벨트의 표심이 역대 어 느 대선보다 큰 변수로 부상한 상태다.

/연합뉴스

유럽연합, 난민 유출 막으면 재정 지원

중동·아프리카국 등에 제안

유럽연합(EU)이 난민 유입대책의 하 나로 난민 유출국들을 대상으로 난민 유 출을 자제할 경우 무역 및 투자 인센티 브를 제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보도한 바 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7일 주로 중동 및 아프리카국들을 대상으로 EU에 대 한 난민 유출 억제 조건으로 비자 발급 제한 완화와 620억 유로에 달하는 EU 투자기금 배분 혜택 등 일련의 반대급부 를 제안했다.

EU는 앞서 터키를 상대로 유사한 정 책을 시행해 EU에 대한 난민 유입이 많 이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EU 는 터키에 난민 억제 대가로 터키인에 대한 비자 발급 완화 및 난민 처리를 위 한 60억 유로의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U의 새 제안은 620억 유로의 투자 기금 운용 과정에서 대상국들이 난민 대 책에서 EU 측과 협력하는 정도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한편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아울러 해당국들과의 무역협

상에서 EU 측이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 한다는 것 등이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가 제 안의 혜택을 보려면 EU에 불법 입국한 자국민들의 송환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러나 EU의 이러한 새로운 난민 전략이 터키에서처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 이다. 소요 비용과 EU가 상당수 비도덕 적인 정부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때문 이다. EU가 난민 대책에 골몰한 나머지 위험하고 비인도적인 길을 택하고 있다 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나탈리아 알 론소는 EU가 국경 및 이민 관리 책임을 제3국에 아웃소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권존중 의무를 아웃소싱하는 셈이라 고 비판했다.

또 난민 대책과 관련해 터키에 60억 유로를 지원하는 선례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난민 유출국으로부터 유사한 요구 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아프리카 니 제르는 EU에 자국민의 EU행 유출을 통제하는 대가로 자국 GDP의 7분의 1 에 해당하는 10억 유로를 요구한 바 있 /연합뉴스



페루 대선 승리를 선언한 쿠친스키(오른쪽)가 5일(현지시간) 리마의 자택에서 부인 낸시 랭과 밖에 모여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쿠친스키, 페루 대선 승리 선언

후지모리 "아직 안 끝났다" 오늘 공식 결과 나올 듯

페루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77) '변화를 위한 페루

게이코 후지모리(41) 민중권력당 후 보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만큼 승부 가 끝나지 않았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

1%를 개표한 결과, 쿠친스키는 50.14% 를 득표했으며 후지모리는 49.86%로 뒤

를 바짝 추격했다.

개표가 79% 완료됐을 당시 두 후보 간 격차는 1.6%포인트였지만 개표가 막 바지로 흐르면서 0.28%포인트로 줄어

선관위는 현재 해외 부재자 투표와 산 간오지 지역의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있 인 당' 후보 캠프가 7일 승리를 선언했다. 다. 선관위는 오는 9일에나 개표가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쿠친스키는 공식 결과 가 나오기 전까지 승리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후지모리 캠프는 산간오지 지역에서 페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7. 아버지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에 힘입어 몰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힐러리, 트럼프와 양자대결 4%P 앞서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가 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 후 보인 도널드 트럼프와의 가상 양자대결에 서 48%대 44%로 4%포인트 앞서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NBC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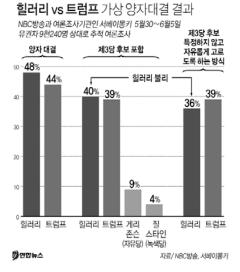
그러나 제3당 후보를 넣어 가상대결을 벌이면 판도가 역전돼 트럼프가 이기는 것 으로 조사됐다.

NBC방송과 여론조사기관인 서베이몽 키는 5월30~6월5일 유권자 9240명을 상 대로 추적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의 우세는 한주 전의 2%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다소 굳 건해졌다.

"대통령이 될 준비가 안 돼있다"며 트 럼프에게 직격탄을 날린 지난 2일 샌디에 이고 외교 정책구상 연설이 어필한 결과로

년 전 녹색당 후보로 나섰던 질 스타인을 넣어 조사를 벌이면 트럼프가 40%로 39%



인 클린턴 전 장관을 1%포인트 앞서는 결 과가 나왔다. 존슨과 스타인은 각각 9%, 4%의 지지를 얻었다.

또 제3당 후보를 특정하지 않고 자유롭 하지만 게리 존슨 자유당 대선후보와 4 게 고르도록 하는 방식의 조사에서도 트 럼프가 클린턴 전 장관을 39%대 36%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로 변신한 메릴 스트립

6일(현지시간) 밤 뉴욕 센트럴파크 야외무대 에 오른 연례 셰익스피어 연극 공연에서 도널

드 트럼프로 분장하고 무대에 등장한 미국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메릴 스트립. 그는 빨 강 넥타이 차림으로 축 처진 복부까지 트럼프를 그대로 재현했다.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컨설팅 전문업체/상가건물 주택 나대지 임야 구함 062-714-2251

경매 추천물건

- ★ 광주 남구 주월동 6층상가 대지 342m² 건물 1,259m² 감정가7억9천6백 최저가 5억5천7백 초등학교앞 학원건물
- ★ 담양 무정면 봉안리 공장 대지 6,552m² 건물2,473m² 감정가 13억9천3백 최저가 7억8천
- ★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역인근 5층숙박시설 대지298㎡ 건물1,206㎡ 감정가 12억2천5백 최저가 5억4천9백 (감정가45%)
- ★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삼성전자인근 공장 대지 3,293m² 건물 1,495㎡ 감정가 17억5천1백 최저가 12억2천5백
- ★ 광주 북구 매곡동 4층상가 대지 739m² 건물1,261m² 감정가12억1천6백 최저가 8억5천1백 학원 식당 운영중
- ★ 함평 해보면 용산리 공장 대지 3,306m² 건물1,977m² 감정가 26억1천1백 최저가 14억6천2백
-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영암버스터미널 옆 대지1,948m² 일반상업지구 대로변 투자 최적합 감정가 8억8천6백 최저가 8억8천6백

수익형 추천 물건

- ★ 광주 서구 화정동 6층 모텔유흥 대지 416m² 건물 2,000m² 터미널 뒤편 객실20개 상가4개 고수익율 매매27억(융13억포함),월 천4백만
- ★ 광주 광산구 우산동 80미터 도로변 3층무인텔 대지 2,372m² 건물 2,760m² 객실36개 매매58억(융28억포함),수익성 월평균 8천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융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매매13억5천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m² 건물3,245m² 지상9층 병원빌딩 융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 매매 48억 (요양병원허가득)
- ★ 광주 산수동 대로변 병원건물 대지596m² 건물948m² 주택86m²포함 매매 12억5천만원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명지원옆 중심상권 상가건물 대지 496㎡
-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숭덕고인근 대지222m² 건물400m² 원룸15개 안집방3개 매매6억3천 대출2억포함 보증금 4천 월세5백

매매40억 (보증금 2억3천, 월2천7백)

투자 추천 물건

- ★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 상가 대지 675m² 남구청 옆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가능 매매매24억원
- ★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m² 건물 1,829m² 보증금 6억 월2천3백 융18억 매매 48억
- ★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m²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펜션,빌라부지적합 4,000m²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30억선 교환
-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편션 카페 대지 15,668m² 건물 900m²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광주 서구 쌍촌역 인근 신축 4층건물 대지 239m² 건물 564m²
- 1층 점포3개 버스정류장 앞 주변 아파트 신축중 매매 14억원 ★ 광주 북구 유동 무인텔 대지 1,010m² 건물 1,610m² 객실 20개 월 5천만원 매매 20억원

20년경력/부동산 매매,임대/전지역 신속 책임 중개/경,공매 NPL 컨설팅 010-6211-4585 조여사